

# 탈홍(脫肛)의 원인과 대책



채 민 석

(제일사료<주> 서울직매소장)



사양가로부터 병아리 입추수수와 출하수수를 비교하면 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는다. 물론 육성기간을 통하여 질병이나 기타 관리상의 부주의로 폐사되는 수도 있겠으나 산란개시 후부터 탈홍으로 매일 한두마리씩 도태되어 가는 일이 더 큰 이유일 경우가 흔하다. 본고를 통해 탈홍의 원인과 그 대책을 기술해 본다.

## 탈홍의 원인과 대책

탈홍(脫肛)으로 인한 결과 중 가장 타격적인 것은 계군내에서도 산란이 좋은 닭이 희생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마렉병으로 인한 피해는 마렉백신 개발로 오늘날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탈홍으로 인한 폐사가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 양계장에서는 탈홍 문제가 발생해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냥 넘겨 버린다. 일단 탈홍징후의 위기를 넘긴 계군은 안정된 시기에 도달하면 양호한 산란을 지속한다.

여기서 탈홍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수란관(輸卵管)과 직장인 肛門(총배설강)에서 밀어 내어 졌다가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일단 이 상태가 된 닭은 예외없이 폐사하고 만다. 폐사 전에 탈홍증을 발견하여 본래의 상태로 복귀시켜도 그 닭이 본래만큼 회복되는 수는 거의 없으며 다시 곧 탈홍이 된다.

## <1> 왜 탈홍을 일으키는가?

○사료급여와 광선관리

탈홍을 일으키는 원인은 육성기에 있어서의 잘못된 사료급여 방법과 광선관리에 크게 기인한다. 산란개시기에 난관부에 지방이 끼어 있는 헛암닭은 탈홍이 가장 발생하기 쉬운 닭이다. 사료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육성기에 무제한으로 사료를 섭취케 한 육성계획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난관부 내의 근육조직이 충분히 발달하여 탄력성을 갖추기 전에 초산을 일으키는 점등계획 또한 좋지 못하다. 점등시간을 연장시키면 갑작스런 이상산란(異常産卵)을 초래하여 二黃卵(쌍알)을 낳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항문주위에 무리를 가하게 되므로써 탈홍이 발생하는 수도 많다.

## <2> 탈홍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달걀을 낳을 때는 난관이 예외없이 밖으로 조금씩 밀려나오게 된다. 이는 근육조직의 연동운동으로 계란을 체외로 밀어내기 위함이다. 항문주위의 조직은 이제 막 산란을 시작할 닭이라 할 지라도 훌륭한 탄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야만 산란이 끝난 뒤 모든 조직이 지장없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지장이 없다는 말은 곧 육성기의 급여방법과 광선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과 직결된다.

젊은 닭이지만 복부의 지방이 과다할 때는 난

관과 항문 주의근육의 탄력성이 약해지고 이로 인하여 산란후 정상위치로의 회복이 불가능해져 탈홍과 쪼는 버릇이 생기기 쉬워진다.

광선관리의 잘못으로 초산이 빠르게 되고, 또한 초산에서 너무 큰 달걀(二黃卵)을 낳으면 근육조직이 산란에 대응하지 못하고 역시 탈홍을 일으키며 닭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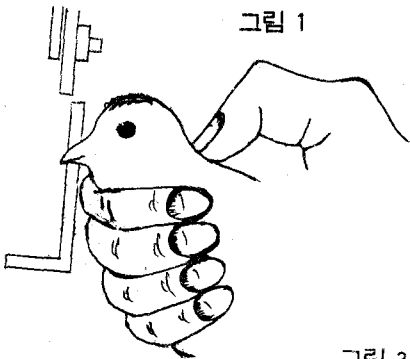
〈3〉 탈홍을 유발하는 그밖의 원인

탈홍의 원인을 전적으로 육성기의 광선관리와 사료의 급여방법에만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밖에도 밀사, 장염 그리고 난관조직에 가해진 육체적 손상도 탈홍의 원인이 된다. 육체적 손상이라 함은 달걀을 체외로 밀어낼 때 조금 노출된 난관을 다른 닭이 쪼아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다음에는 산란후에 탈홍을 일으키는 조직손상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육성기에 광선관리나 사료급여방법의 잘못,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하여 탈홍이 일어나는 수도 많지만 다른 닭이 쪼아서 난관부의 근육손상에서 발전되는 탈홍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추측된다.

〈4〉 효과적인 예방책은?

○ 사양관리상의 주의

탈홍예방의 열쇠는 양호한 사양관리이다. 탈홍 징후가 나타나면 곧 사양관리에 주의하여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쪼는 버릇이 생기면 디비킹의 조사와 광선조도, 사료의 급여방법을 바꿈으로써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태계의 대다수가 단순한 탈홍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는 카니발리즘(Cannibalism), 즉 서로 쪼는 나쁜 습성 때문이다. 초산시기 이후의 산란기에 항문이 다른 닭으로부터 표적이 되어 피해를 입으며, 그 결과 집중적인 쪼기에 희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도 다음과 같은 대책으로 줄일 수 있다. 굵이기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산란계사에 수용할 때 주둥이를 점검한다. 장염이나 내부기생충도 건강장애의 요인이 되는데, 이는 장관내의 염증을 초래하므로써 결국 장관에 자극을 주게 되어 탈홍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면밀히 체크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는 것도 탈홍예방책의 하나이다. 또한 수용밀도에 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 부리자르기 (Debea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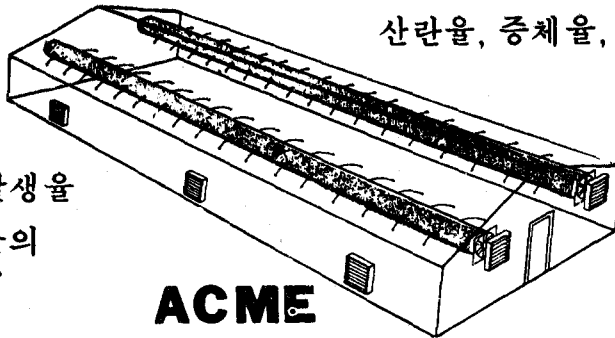
개방제사에서 육성되는 병아리는 6~10 일령에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가 병아리잡기 등의 다른 작업이 용이할 뿐더러 병아리에게도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시기이다. 접둥관리에 의한 육추의 경우에는 조금 늦어져도 무방하나 어느 경우든 어린병아리 때 부리를 절단했을 경우 성계사에 넣기 전에 재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대개 12주령에 재점검하여 성계사로 이동시킨다.

### -방법-

1. 오른손으로 병아리를 완전히 잡아쥐고 엄지손가락으로 두부(頭部)를 미는 듯이 누르고, 인지로는 목을 잡아 약간 잡아당기는 듯 하면 혀는 안으로 들어가므로 위에서 디비커(Debeaker)로 잘라도 혀는 잘리지 않는다. (그림 1)
2. 자른 후 출혈이 보이면 불에 달군 디비커의 칼날에 순간적으로 지저서 지혈시킨다.
3.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상처의 빠른 회복을 위해 디비킹 2일 전후로 항생제와 비타민제를 음수에 타서 투여하면 회복이 빠르다.
4. 12주령 이후에 디비킹을 하면 스트레스는 너무 강해지지만 다시 점검할 필요는 없다.

## 아크메의 환경조절 자동시설이란 무엇일까요 ?

산란율, 증체율, 사료효율의 개선!



질병발생을  
폐사율의  
감소!

**ACME**

평당사육수

부로일러 : 65수

채란계 : 98수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심한 기후와 심한 더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위와 추위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돈으로 환산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倂 鎮 洋 行  
OHJIN CORPORATION

723-4125  
723-4128